

비른정당과 통합론

국민의당 광주 지방의원들 집단 반발

국민의당 지도부가 비른정당 자강 잔류파와의 통합 카드를 먼저 꺼내자 당의 존립기반인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24일 시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중앙당발(發) 비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중앙당과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국민의당 광주시의원들 긴급 회동 성토장 방불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만간 만나 민심 전달키로

고 햇볕정책 폐기와 탈(脫) 호남을 주장하는 비른정당과 손을 잡는다는게 맞는 말이나, "도대체 통합론은 어느 선에서 논의될 것이냐", "지방의원이나 지방선거 입지자들과의 사전 공감대는 있었느냐"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엔 차라리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선거구 유권자들의 조언도 있다"며 탈당을 시사하는 강한 발언도 나왔다.

시기상조고 시의부적절론도 나왔다.

한 의원은 "국회가 좌우가 양분돼 막발을 주고 받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선명성과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끝일 작업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통합론을) 터뜨려 결과적으로국감이 묻히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살신성인 분골쇄신할 줄 알았는데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탈당할 수 있다는 30대 10 분열론과 햇볕정책 폐기와 탈호남 동진전략으로 인한 동교동계 등 호남 중진들과의 결별설로 인한 분당 사태를 우려한 발언들로 풀이된다.

시의원들은 이르면 28일이나 29일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같은 뜻을 광주시당 직무대행인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우택 "홍준표 녹취록 있고 공개된다면 재판에 영향미칠 수 있어"

'진박 청산내쫓듯 하면 당연히 반발'... '홍리더십' 비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한 홍준표 대표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민약 녹취록이 있고 그게 공개가 된다면 (홍 대표의) 검찰수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대법원에 홍 대표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는데 (녹취록이 공개되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 다른 계인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진상규명을 한다든지 하는 건 타이밍상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녹취록이 진짜 있다면 공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민약 현직 의원인 서, 최 의원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당이 결정된다.

서, 최 의원의 출당 가능성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것이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다"며 "선배 의원이고 동료 의원인 사람을 우리 당에서 소위 제명시켜서 출당시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켜하지는 않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와 의원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양분 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고강도 인적정신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나아가 홍 대표의 인적 쇄신 작업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서, 최 의원의 출당이 불발되면 비른정당 통합과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비른정당의 의원들이 전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받기 위해 기준에 당에 있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임정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비해 추후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진박 청산 과정이) 홍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소위 영어려 하면 배당을 하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며 "홍 대표가 서 전 대표님이라든지 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꾸준히 얘기를 하고 나갈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과정을 잘 겪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홍 대표한테도 얘기를 전했다. (인적 쇄신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선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내쫓듯이 할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당내 중진 의원들, '통합보단 연대' 의견"

유승민 '햇볕정책 반대' · '호남지역 탈피' 등 비판



국민의당과 비른정당 간 통합 가능성이 시사되는 가운데 당내 중진 의원들은 통합보다는 연대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추진해야 할 거 아닌가"라며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음을 전하며 통합설이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정부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제야당, 이런 양극단에 치우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국민의당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논의를 위해 비른정당 주호영 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통합하려면 국민여론 당 내 압도적 지지, (통합에 대한) 상대의 적극적인 자세 등이 맞아 떨어지야한다"며 "국민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도 비판적이지만 정부 성공을 위해

선 국민의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다. 당내 의견도 통합 주장도 상당하지만 반대의견도 상당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른정당도 통합하려면 상대방의 동질적인 것을 크게 보고 이질적 차이를 작게 봐야 할 것인데 유승민 의원을 보면 호남 지역 탈피라든가 햇볕정책 포기 등 국민의당과의 차이를 크게 보고 있다"며 "그런 상대와 어떻게 통합해 가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전반적 이유를 들어 지금은 비른정당과 통합 얘기를 때가 아니고 정책연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나아가 선거연대까지도 추진해볼 수 있겠다"며 "통합은 그 이후에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추진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당은 2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 비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지도부 의견 보고, 의원들 간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홍문표 "내달 초까지 부분 통합이라도 해야"

"오실 분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오길"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4일 비른정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통합에 있어서는 어쨌든 한 단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물의 출발새이침'에 나와 "비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통합을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장은 이어 "오실 분들은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빨리 오길 바라는 뜻에서 데드라인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표면화돼 있는 것은 전체가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부분통합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라든지 국가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런 분들과 비른정당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인데 비른정당의 일부 분은 오고 일부는 안 온다고 해서 통합을 멈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